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325

식민지 아카데미즘과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

정 하 늬*

요 약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학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을 보여주는 소설에 나타나는 식민지 아카데미즘에 대해 살펴보았다. 식민지 조선에는 대학이 경성제국대학 한 곳뿐이었다. 그러니 식민지 조선의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낭비』(김남천), 『푸른 탑』(이효석), 『수난의 기록』(유진오), 『화상보』(유진오)에는 논문을 쓰는 지식인 청년들이 등장한다. 본고는 이들의 논문 쓰기가 지식인들의 지적 욕구 충족이라는 문제는 넘어서서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한 지식인들의 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들의 논문은 영문학을 통해 제국-식민지 관계의 조선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선에서 아카데미 확립이 불가능한 현실을 방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적인 것이 제국의 것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결국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불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식민지 작가들은 오히려 그 불가능성 안에서도 지식 재생산을 열망하고 있었던, 그렇게 학문과 현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의 지적 욕망과 한계, 좌절, 그러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 재생산의 가능성을 장의 폐쇄성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식민지 아카데미즘, 지식인 청년들, 영문학, 경제학, 자연과학, 지식의 재생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교수

목차

1. 식민지 학지(學知) 속 지식인들
2. 非조선적인 학문으로 조선 보기
3. 제국 학지(學知)에 종속된 '보편성'과 '실증주의'
4.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조선의 청년들

1. 식민지 학지(學知) 속 지식인들

근대적 개인, 근대의 규율권력 체계 아래의 개인인 청년은 규율의 장 안에 존재하면서도 장 안팎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다. '지식인'인 청년은 특히 이러한 성향이 강한 이들로, 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무기 바로 '지식'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청년'은 '학생'과 동의어처럼 인식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계층과 계급을 배제하는 개념이 되었다. 즉 '청년'은 지식인 청년에 의해 그 정체성이 규정되고 청년의 범주는 지식인 청년에게 지도를 받은 다른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젊은이들이 '청년'에 포섭되는 구조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 전반에 걸쳐 청년 담론은 주로 엘리트 지식인의 정체성과 연결되는데, 이는 1926년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본래 지식인은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한 일반적 법칙과 추상적 원칙을 빈번하고도 깊이 생각하는 존재이며, 일정한 의식세계를 창조하고 분배하며 보존하는 기능을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시대와 사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존재이다.[1] 즉, 지식인은 지식의 담지자이며 재생산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항상 '합류'와 '고립'의 기로에 서 있는 자들이며, 기존의 흐

1)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8-9면.

름을 따르는 손쉬운 방식들이나 권력자나 인습에 순응하는 것을 '기꺼이' 꺼리는 '비판적 감각'에 그 존재가 달려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2] 이런 점에서 지성인의 과업 중 하나를 사고와 소통을 제한하는 여러 고정 관념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특히 지식인 청년은 '청년' 세대의 전복성이라는 특징과 전술한 지식인의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지식'은 본래 소수의 창의적 활동의 소산이며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것인데, 점차 이 '제한된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동시에 질적 격차도 커지게 되면서 지식은 '지배의 도구'로서의 위계 구조를 갖게 된다.[4] 그러므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는가는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근대 지식은 근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에, 근대 초기부터 조선에서는 계몽사상과 함께 이 힘의 근원인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다. 근대의 학지(學知)는 이렇게 지식을 생산하고 제도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한국 근대소설에서도 지식과 제도, 사회와 문화가 지식인 청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는 작품들이 다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에서 드러나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식의 생산과 제도화는 어떠했으며,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은 이 지식 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제국대학'이라는 아카데미즘의 문제와 관련지어 살펴보려고 한다.

1920~30년대는 조선에도 근대적 의미의 '학계'라 할 만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인 동시에 일제의 식민 통치가 문화적 차

2) 에드워드 W. 사이드, 전신욱·서봉섭 역, 『권력과 지성인』(개정판), 창, 2011, 60, 62면.
3) 위의 책, 16면.
4) 김필동, 「지식 변동의 사회사-과제와 방법」, 한국사회사학회, 『지식 변동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2003, 18면.

원에서 제도화된 시기기도 했다. 이 시기부터 식민지 조선의 지식의 장(場)에서는 '지식 체계의 근대성'과 '식민성의 문제'가 맞물릴 수밖에 없었다.[5] 일제 강점기 조선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여러 학교들이 있었지만, 그곳은 '전문학교'이지 지식 전달과 재생산의 최상위 기관인 '대학'은 아니었으니, 조선의 아카데미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인들은 근대적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벌였고, 일제는 전문학교와 그곳의 선교사, 교수들로부터 유입되는 서구 근대의 지식이 식민지 조선 땅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두려워 일본의 제국대학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6]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1929년 경성제대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조선에서는 "학문 재생산"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7] '대학 설립', 이는 조선에도 조선만의 아카데미즘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홍종욱이 지적하듯이, 일본의 제국대학 시스템을 식민지에 '이식'한 경성제대에는 "조선어에 기반한 조선인의 아카데미즘" 형성은 요원한 것[8]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조선의 지식과 지식 장(場)을 간절히 바랐던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근대적 대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9] 사실 경성제대는 피식민자로서 식민지를

5) 박명규, 「지식 운동의 근대성과 식민성」, 한국사회사학회 편, 『지식 변동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2003, 120-121면.

6) 일제는 경성제대를 다양한 교과목을 갖춘, 가장 체계적인 고등 교육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점 때문에 당대 사학 교육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높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일제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한 동시에, 식민 지배를 위해 고등 교육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위의 글, 130-131면)

7)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사이間SAI』 11, 2011, 97면.

8) 위의 글, 98면.

9)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은 분명 '제국'의 학문을 체계화하고 연구하는 관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를 위한 '아카데미

좀 더 잘 통치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으로, 조선을 아카데미즘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선은 이 아카데미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웠다.[10] 그러나 일제 강점기 조선에 최고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은 하나뿐이었다는 점, 또 경성제대의 교수진은 모두 일본에서 온 일본인 교수였고, 강의는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다는 점, 교강사의 지식 전달식 교육 방식은 처음부터 경성제대는 조선의 아카데미즘이 아니라 제국의 식민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11]

즘'(지배 체제의 이념을 옹호하고 봉사하는 비판적 아카데미즘)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짙다. 실제로 경성제대가 재조일본인들을 위한 대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경성제대에는 긍정적 의미의 '아카데미즘' 즉, 학문 연구와 예술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지키며 그렇게 생산된 지식을 재생산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조선의 지식인의 (혹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 투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아카데미즘'이라고 칭했을 때, 조선인의 학문 활동뿐 아니라 일본인 교수 및 연구자들의 연구까지 포함하여 살펴봐야 식민지 조선의 '식민지 아카데미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식민지 관학의 학지와 학문 언어인 일본어를 매개로 한 조선인의 연구 활동의 범위 내에서 조선인이 생산하려고 했던 조선인들의 '식민지 아카데미즘'에 한해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10) 위의 글, 98면.
그래서 결국 학자가 되려 했던 조선인 학생들은 2년 정도 조수로 근무한 뒤 대학을 떠났다고 한다. 유진오나 최재서처럼 강사의 자리에 오른 조선인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승진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경성제대 출신이 대학에 자리를 잡은 것은 해방 이후였다. 홍종욱은 이런 의미에서 경성제대는 "조선인이 중심이 된 학문 재생산의 기구로서는 기능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같은 글, 99면)

11) 경성제대 출신인 조용만의 「晩餐」은 이러한 식민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한계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한 경성제대 예과 문과 2학년생 득수가 등장한다. 예과 2학년은 학부에 가서 전공할 것에 따라 한 달에 몇 번씩 교수의 집에 모여 '會'를 여는데, 데라모토는 국문학회 회원으로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며 준비를 하지만, 득수는 2학년이 되어서는 오히려 학교에 잘 가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취직을 할까 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경성제대 예과의 강의는 "무미건조"하기 때문이다.
"강의는 일상대로 무미건조하였다. 교수들이 노트를 가지고들어와서 씁스레한얼굴을하고 그것을 네리읽으면 생도들은 열이낳게 그것을 받아쓰고 그리고 벨이울리면 선생이 나가고 생도들은 책상을타고 앉어서 담배를피고 잡담을 하는것이었

경성제대는 “순수학문 곧 아카데미즘은 실증적이어야 한다는 규범”을 강조하였는데, 이 실증주의 방법론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떠한 견해·지식도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했다고도 한다.[12] 조용만이 지적한 “무미건조”한 강의식 교수와 강좌제가 바로 그 예일 것이다. 그렇지만 1930년대 경성제대에서는 “‘식민지적 상황에 저항적으로 대립하는 조선학’이라기보다는 ‘식민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립되는 조선학’”에 가까운 자국(문)학을 형성하려는 맥락이 존재했다고 한다.[13] 이러한 ‘조선학’이 조선어, 조선 문학, 조선 역사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면,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김남천의 『浪費』(1940~41), 이효석의 『푸른 탑』(1940),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1940)·『화상보』(1939~40)의 주인공들은 학문의 ‘보편성’의 영역(영문학·경제학·자연과학(식물학))에서 또 제국의 아카데미가 승인한 방법론인 실증주의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동안 『낭비』나 『푸른 탑』은 외국문학의 전유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14], 『화상보』는 근대 과학과 교양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15] 등, 각각 개별 작품의 연구는 다

다.” (조용만, 「晩餐」, 『春秋』 1941.7. 창작11면.)

12) 박명규, 앞의 글, 134-137면.

13) 특히 식민지 아카데미즘 안에서 ‘조선문학사’ 분야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류준필,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그 지정학적 함의-자국(문)학 형성의 맥락에서」, 『한국학연구』 32, 2014. 104-108면.)

14) 서은주,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2006. ;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의 영문학 작품 수용과 상호텍스트성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47, 2011. ;이양숙, 「이효석의 『푸른 탑』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전략 : 서양고전의 차용과 변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 2012. ; 장성규, 「식민지 조선에서 ‘헨리·제임스·조이스’라는 기호」, 『한국근대문학연구』 29, 2014. ; 배상미, 「아일랜드 문학을 경유한 제국주의 넘어서기-이효석과 사토 기요시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9, 2015.

15) 송효정, 「비국가와 월경(越境)의 모험-1930년대 대중소설과 청년 코스모폴리

양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그 자체가 학문 연구 활동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아카데미즘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쓰고 있는 '논문'-대학 강사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논문, 고보 교수 자리를 결정하는 논문, 학문적 만족을 위한 논문-이다. '논문'은 아카데미즘의 핵심이 되는 지식 생산 행위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재생산된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모두 학문 재생산의 주체인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택한 이들로, 논문이 통과되면 대학의 강사로 혹은 고보 교수로 취직하게 된다. 문제는 논문의 통과를 결정하는 심사위원들은 '제국 아카데미즘'의 일원으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주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논문이 승인된다는 것은 조선인의 학문 연구 활동이 제국의 아카데미즘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들의 학문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 개인과 심사위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차이, 학문적 경향의 차이 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식민지 아카데미즘은 이러한 중층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니 조선인의 지식 재생산은 이러한 여러 담론의 길항 속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연구로 존재하기는 힘든 것이었다. 이 작품들이 발표된 1940년을 전후한 시기는 이미 첫 경성제대 졸업자를 배출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인 데다가, 이 작가들은 직간접적으로 '경성제대'와 관련이 있으니[16] 경성제대에서 오롯한 조선의 아카데미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탄」, 『대중서사연구』 24, 2010. ; 이행선, 「일제말기 유진오의 문화 인식」, 『국제어문』 53, 2011. ; 윤대석, 「〈화상보〉에서의 교양과 과학」, 『우리말글』 70, 2016.

16) 김남천은 경성제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경성제대 졸업생인 최재서와 '인문평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장문석은 1930년대 말 이후 김남천은 최재서(와 '인문평론' 아카데미)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보았다. (장문석, 「소설의 알바이트화, 장편소설이라는 (미완의) 기투」, 『민족문학사연구』 46, 2011.) 또 이효석은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이고 유진오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인 데다가, 유진오는 실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전제하고 다시 소설을 보면, 대체 이 식민지 지식인 청년들이 이 아카데미즘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식민지' '아카데미즘'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지식인 청년들의 욕망을 보이려는 것일지, 조선인에 의한 조선의 지식 재생산이 실현 불가능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보이려는 것일지 말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카데미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카데미즘의 일원이 된다는 것, 즉 '학자'가 된다는 것은 학문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베버는 '학자'란 능력과 요행이라는 외적 조건뿐 아니라 열정과 소명의식이라는 내적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17] 그는 학문은 "〈자기성찰〉과 사실관계의 인식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직업〉이지, 구원재(救援財)와 계시를 희사(喜捨)하는 심령가나 예언자의 은총의 선물이 아니며 또한 세계의 의미에 대한 현인과 철학자의 사색의 일부분도" 아니라면서[18], 지식과 지식의 담지자는 '가치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학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무렵으로, 이 강연회의 청중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해석에 목말라 있는 학생들로 이들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예언자를 요구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베버는 이러한 기대를 알면서도 냉철하게 '학자'의 자세로 '직업으로서의 학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베버의 강연 당시 독일과 독일 청년의 상황과 1940년을 전후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지식인 청년과 지식이 그것이 놓인 장(場)을 둘러싼 헤게모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

제로 경성제대 강사 경력이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인 중 하나이다.

17) 막스 베버,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나남, 2017.

18) 위의 책, 96면.

다. 베버의 우려처럼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직업으로서의 학문'은 사회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다. 사실 '경성제대'는 지식인 청년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뿐 아니라, 당시 청년들의 입신출세의 욕망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제국대학의 장(場)에 들어가는 목적이 권력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제국대학 학지의 이러한 양가성-가치판단과 관련된-은 일단 조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것이 '조선'의 것이 아니라 '제국'의 한 지방인 '조선', 결국 제국의 것을 이야기하는 구조가 된다는 아이러니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고의 대상 작품 속 주인공들이 작성하는 논문을 보면, 제국대학이라는 아카데미즘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욕망이 입신출세나 지적 욕구 충족 등 단순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베버가 이야기한 가장 원론적인 '직업으로서의 학문'에 대한 태도, 이상적인 아카데미즘 속의 학자의 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이면으로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들의 '조선의 지식' 재생산에 대한 욕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인 지식인이 주체가 되어 조선의 지식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민지의 학지(學知)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 불완전한 식민지 조선의 아카데미즘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제국대학 아카데미즘 안에서의 '논문 쓰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非조선적인 학문으로 조선 보기

김남천의 『낭비』의 이관형과 이효석의 『푸른 탑』의 안영민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청년이다. 이들은 강사 채용을 심사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 이들이 강사가 된다는 것은 지식의 주체가 되어

생산한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국대학은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의 교원들과 달리 학문 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니[19] 제국대학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재생산하고 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대학의 강사 임용 논문을 쓴다는 모티프는 두 소설 모두 동일하지만, 논문을 쓰는 과정과 심사 이후의 진로는 다르다. 특히 이관형과 안영민 모두 '영문학' 논문을 쓰지만, 둘의 논문은 대상 작품의 특징과 그 논문을 심사하는 일본인 교수의 견해 차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왜 영문학일까. 영국에서 영문학이 아카데미즘에서 제도적 지위를 얻은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이지만,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영문학이 남자 엘리트 교육에서 다루어지면서 벌써부터 아카데미즘에서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20] 그리고 경성제대에는 국어학·국문학 강좌와 동일한 비중으로 영어학·영문학 강좌를 개설하였을 정도로 영문학은 제국대학 아카데미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일본은 영문학을 통해 "문학 텍스트 공간으로 식민지를 공유"하면서 일본 스스로를 영국에 비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1] 즉 일본은 영문학에서 '제국'의 모델로서의 영국을 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문학의 범주다. 제국 문학의 특성 상 영국

19) 정근식·정진성·박명규·정준영·조정우·김미정,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312면.
제국대학의 강좌제는 '강좌'에 바탕을 둔, 교수 중심 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였다고 한다. 이 강좌제가 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했다. 여기에서 '강좌'는 연구와 교육을 위한 조직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강좌에는 한 명의 교수가 임용되고, 이 교수를 도울 조교수와 이들의 지도를 받아 학술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조수도 있었다. 즉 교수-조교수-조수가 위계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같은 책, 311-313면.)

20) 윤수안, 윤수안·고영진 역, 『'제국일본'과 영어·영문학』, 소명출판, 2014, 131면.

21) 위의 책, 157-58면.

의 문학은 물론 영국의 식민지에서 제국의 언어인 영어로 쓰인 문학을 비롯하여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의 문학까지 넓게 '영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영문학 연구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문학 연구는 동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제국의 문학을 또 다른 제국의 언어와 체계로 연구하고, 그것으로 제국의 학지(學知)에 진입하려는 '식민지' 지식인의 위치란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낭비』의 이관형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남아 강사채용 논문을 작성 중이다. 이 논문은 "이관형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공에의 자극"이 달린, "생애와 바꾸어도 사양치 않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22] 실업가 이규식의 아들인 이관형에게 경성제대의 강사는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다. 논문을 대하는 이관형의 태도에서는 열정과 소명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듯하다. 그런데 일본이 영문학에서 '제국'이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한편 '피부색'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했듯이, 제국의 제도 하에서 영문학을 연구하는 이관형은 제국의 불균질한 틈, 주변인의 시선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헨리 제임스'이다.

이관형의 논문 테마는 "'文學(문학)에 있어서서의 不在意識(부재의식)'"으로, "'헨리・젬스에 있어서의 心理主義(심리주의)와 인터내슈낼・시튜에—슌(國際的舞臺)'"(1:217)을 다루는 것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관형의 논문은 헨리 제임스를 "시대와 연결시켜서 그의 문학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시대적 의의를 추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시기 경성제대의 학풍은 엄격한 과학적 실증주의였다

22) 김남천, 『낭비』 1회, (『인문평론』 1940.2.) 220면.
앞으로 이 소설을 인용할 경우, 인용된 부분의 횟수와 면수만을 표시하도록 한다.

고 한다. 경성제대의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녔으니, 이관형도 경성제대를 지배하던 과학적 실증주의적 방법론 밖의 것으로 이 주제를 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헨리·젬스를 시작할 때에도 끝까지 심리현상을 냉혹한 과학적인 태도로 분석할려는 명심만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으나 그것이 어느정도까지 이루어 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9:140)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관형은 식민지 지식인인 자신의 입장에서 헨리 제임스를 논하는 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헨리 제임스는 지금도 극단적으로 다르게 수용되는 작가이다. 그의 문학은 애매성·양면성·다양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였고 미국과 유럽 어느 쪽에도 안주하지 못했던 그의 삶과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헨리 제임스는 미국인과 유럽인을 한데 모으고,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으며 중심과 주변을 끊임없이 옮겨 다닌 작가이며, 그의 소설은 이런 이질적이 목소리가 한데 섞인 혼성교향곡과 같은 것이다.[23] 장성규는 김남천이 소설의 다성적 성격을 복원하기 위한 서술 기법의 실험이 헨리 제임스의 소설과 상통한다는 점을 논한 바 있는데, 그는 김남천이 "시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성적 서술 기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당시의 보편주의적 사유 속에서 벗어나려 한 김남천에게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이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24] 장성규의 논의는 헨리 제임스를 매개로 한 김남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식민지 아카데미즘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논문의 주제 선택뿐 아니라 심사 과정 역

23) 이효석, 『헨리 제임스의 영미문화 비판』, 아카넷, 2008, 7면.

24)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의 영문학 작품 수용과 상호텍스트성의 기획」, 211-212면.

시 주의를 요한다.

> "그러나" 가사이교수는 다시 눈을 논문위로 옮기면서,
> "아직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지 만서두…… 가령 이 부재의식(不在意識)의 천명(闡明)같은건데……어떨가?"
> 안경이 번쯕 빛나고 수염이 관형을 건너다 보았다. 논문에서 낯을든채 그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한다. 이관형은 가슴이 선뜩하는것을 느꼈으나 그대로 긴장하여 귀를 기우린다.
> "단순히 심리학적인 문제루 국한시켜서 취급하는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중략)
> "그것보담두, 그것까지를 합쳐서 사회적인 깊이에까지 연결을 시키는게 어떨까 해서 하는 말인데… 물론 이 논문의 전체의 모티-브가 사회적인 토구에까지 있는것을 모르는배는 아니지마는……."(9:143)

이관형은 논문을 제출한 후 자기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도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가사이 교수는 논문의 내용 전개보다도 제국의 아카데미즘이 용인할 수 없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집어낸다. 1930년대 말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문제에서 찾는 것은 유비하여 말하면 일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이 교수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는데, 논문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인 심리학연구실의 사끼자까(向坂) 교수가 논문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사끼자까 교수는 이관형의 논문의 무의식에 놓여 있는, 부재의식의 사회적 역사적 관점을 문제로 삼는다.

> "(...) 이논문은 그렇지만, 단순한 문학적인 이유만으로 해석할수 없는 군데가 많지 않겠소. 문학적인 이유외에 사회적인 이유라고도 말할단한것이 있지는 않소. 헨리·쩸스는 군의 설명에도 있는것과같이 미국에 났으나 구라파와 미국새를 방황

하면서 그 어느 곳에서나 정신의 고향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말하오. 또 그의 후배라고 할만한 쩸스·쪼이스는 아일란드태생이 아니오? 뿐만아니라 군이 부재의식의 천명의 핵심을 관습과 심정의 갈등, 모순, 분리에서 찾는바엔 여기에 단순히 문학적인 이유만으로 해석될수 없는 다른 동기가 있는것이 아니오?"(11:205)

"아니올시다. 결코 문학적인 이유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리 없습니다. 어떠한 문학이든 환경과 분리된것은 없을줄압니다. (...) 그러니까 문제해명의 하나의 목표를 갖어다가 사회적 환경에 연결시켯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문학의 탈선이 아닌줄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이오, 문학적인 문제라고 굳게 자신합니다."(11:205)

사끼자까 교수에게는 헨리 제임스나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배경이 더 중요한 듯 보인다. 이관형은 헨리 제임스가 형상화한 '문학'에만 방점을 찍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해부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이고 "문학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환경 차이에서 기인한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려 한 것이라 강변하지만, 사끼자까 교수는 헨리 제임스 문학이 반영하고 있는 '현실'과 그것이 거울이 되어 비추는 일제와 식민지 조선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문학 작품은 그것이 놓인 사회적 현실과 유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문학 전공자가 아닌 사끼자까 교수가 영문학 강사 채용 논문을 문학적 잣대가 아닌 다른 잣대로 문학 논문을 평가한 것은 옳은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학문 연구의 결과는 '알 가치가 있다'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점[25]에 비추어 보면 이관형의 의도는 문명 학문 그 자체에 목적이

25) 막스 베버, 앞의 책, 66면.
"학문연구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곧 학문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는 〈알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전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실에서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도 배제되어야 한다.[26] 그러나 가사이 교수가 학자로서의 이관형의 자질을 인정하고 경성제대 아카데미즘의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는 면이 있어도 그의 논문을 인정한 것과 달리, 사끼자까 교수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를 의식한 채 논문을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관형은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고 결국 대학을 떠난다.[27]

문제는 작가 김남천 역시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관형의 논문 심사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관형은 논문 제출 후 교수들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헨리 제임스 공부를 계속해야 하지만, "이상스럽게도 그는 다시 그가 완성한 논문의 정신세계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여기에서 애초부터 강사 취직이 목적이 아니라 이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 이관형의 목적인 것처럼 서술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이 논문의 진짜 목적은 강사 채용이 아니라 '조선'의 아카데미즘을 용인할 수 없는 제국대학의 교수들을 향한 것인 셈이다. 그들이 교양의 최고 위치에 놓는 그리고 일본 자국 문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문학에서도 당대 국제 사회의 흐름을 이렇게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연구의 결과가 알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이 전제 자체는 학문의 수단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는 그것에 깔린 궁극적 의미를 기준으로만 해석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이 궁극적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삶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 입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거부할 수도 수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6) 위의 책, 74-77면.

27) 『낭비』는 이관형의 논문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인문평론』의 폐간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경영」에 제국대학의 강사가 되지 못한 이관형이 최무경이 일하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후 「맥」에서 이관형은 최무경의 전 애인인 오시형이 전향을 하게 된 동양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국대학을 떠난 이후 한결 자유롭게 다양한 담론에 대해 논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러니 이관형이 열심히 쓴 논문은 영문학으로 일본의 제국됨을 보여주고자 했던 일제의 영문학 연구에 대한 일종의 반대 포즈라고 할 수 있다. 제국의 제도와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여 제국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관형의 논문이 지도교수가 칭찬할 정도로 어학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 역시 아카데미즘의 자율성 측면에서 조선인의 실력이 더 낫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관형은 非조선적인 것, 즉 '영문학'이라는 전혀 다른 학문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읽어낸 것이며, 이관형의 논문 심사 과정은 경성제대가 식민지 아카데미즘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학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힘들게 논문을 쓰고, 이 논문을 써야 스스로를 넘는 것이라고 했던 이관형의 말은 결국 식민지 조선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운영되던 은폐되었던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현실을 부당한 심사 과정을 통해 보여주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읽을 수 있다.

이효석의 『푸른 탑(綠の塔)』[28]의 영문학도 안영민 역시 강사 채용을 앞두고 논문을 쓰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피의 결합'을 보여주어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영민의 논문 심사 과정을 통해 권력이 장악한 지식의 장, 또 그것을 둘러싼 일제의 제도·정책·담론 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낭비』의 이관형이 논문 주제로 영국인 작가 헨리 제임스를 택한 것과 달리, 『푸른 탑』의 안영민은 영문학 중에서도 변방의 문학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문학을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非조선적인 것,

28) 『푸른 탑』은 『국민신보』에 1940년 1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연재된 일본어 소설이다. 이 글에서는 『이효석 전집』 4권(창미사, 2003)에 실린 번역본을 텍스트로 사용하겠다.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후에는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제국의 문학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관형이나 안영민 모두 제국의 문학적 전통과 거리가 있는 작가와 작품을 택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인 이효석이 경성제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뛰어난 학생 안영민을 주인공으로 삼아 일본어로 이 소설을 쓴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일본어로 영문학 논문을 쓰는 조선인 지식인 청년의 이야기를 일본어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성인은 한 언어 안에서 태어나고 그 언어 속에서 여생을 보내므로, 언어는 그들의 지적 활동의 핵심 매개체가 된다.[29]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영민의 논문과 연애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일본어 소설 『푸른 탑』은 일제 아카데미즘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어로 쓰인 아일랜드 문학'을 연구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야만 한다. 시인이자 영문학 교수였던 사토 기요시(佐藤清)는 1926년부터 1945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경성제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다.[30] 사토 기요시 교수는 경성제대에 부임하기 전에는 예이츠에 공감하였고 「전시 중의 애란의 반란과 애란 시인의 무리」(1920), 『애란문학연구』(1923)등을 쓰며 아일랜드 문학에 관심을 보였으나,[31] 경성제대 부임 이후에는 애란문학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한다.[32] 사토 기요시는 영국제국주의가 아일랜드인의 권리를

29) 에드워드 W. 사이드, 앞의 책, 66면.

30) 사토 기요시와 최재서(또 『인문평론』, 『국민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노 마사토, 「경성제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한국현대문학연구』 26, 2008.),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역락, 2009.) 등이 있다.

31) 사토 기요시 교수와 아일랜드 문학, 경성제대에 애해서는 윤수안, 앞의 책의 4장 참고.
사토 기요시는 영국에 체류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고했었는데, 「전시 중의 애란의 반란과 애란 시인의 무리」는 검열에서 문제가 되어 그 글이 실린 잡지는 임시로 발행이 정지된 적도 있다고 한다. (윤수안, 같은 책, 184면.)

32) 배상미는 조선에서의 아일랜드 문학연구의 맥락이 일본의 그것과 다르니, 경성제대 교수 사토 기요시로서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용인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나, 대영 제국의 문화를 모두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영국에 대해 상반되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는 지배자 일본과 피지배자 조선을 보고, 여기에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를 읽었다.[33] 사토 기요시가 경성제대에서는 아일랜드 문학을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제자였던 이효석은 〈존 미링턴 싱그의 극연구〉를 졸업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점과 싱이 사토가 그의 저서에서 극찬한 작가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효석이 사토 기요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34] 게다가 1920~30년대 조선에서는 아일랜드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영국-아일랜드의 상황이 일본-조선의 상황으로 읽히기 충분했기 때문이다.[35] 이효석이 아일랜드 작가의 영문학 작품으로 논문을 썼던 것처럼, 『푸른 탑』에서 안영민도 아일랜드 전설 '디어드라'를 소재로 한 아일랜드 작가, 예이츠와 싱에 대한 논문을 쓴다.

> 「데아드라의 전설에 관하여」라는 연구였지만 이 아일랜드의 슬픈 전설의 전거(典據)를 파헤쳐 들어가면서 그는 얼핏 탐구 논문보다도 감동과 영탄(詠歎)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치밀한 연대적 고증을 조사**하고 있던 중, 어느 사이에 예이츠나 싱그의 작품 기타의 것에 취해버린다. 울스타의 왕 콘티니바와 우스나의 아들 나이시 형제와의 싸움, 나이시를 사모하여

것을 우려하여 아일랜드 문학 연구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배상미, 「아일랜드 문학을 경유한 제국주의 넘어서기-이효석과 사토 기요시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9, 2015. 491면.)

33) 윤수안, 앞의 책, 190-195면.

34) 배상미, 앞의 글, 492면.

35) 이승희는 아일랜드와 조선의 유비관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해관계 속에서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선에게 아일랜드는 식민국의 미래였기 때문이다.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280-283면.)

> 비운에 빠지는 데아드라의 한탄에 강하게 감동하면서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문학의 장구(章句)에 거의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285면, 강조:인용자)

『낭비』의 이관형이 강사 임용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채 논문을 쓰는 것과 달리, 『푸른 탑』의 안영민은 소논문을 제출하고 전형이 끝나는 대로 "문학부 강사로 취임이 약속"된, "약속은 이미 기정된 일이고 논문은 그것에 대한 한 노력을 표시하는데 불과한 것"인 상황이다. 안영민은 "치밀한 연대적 고증"을 비롯한 경성제대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따라 연구를 한다. 그러나 그는 문학을 현실의 장에서 떼어 내어 치밀하게 탐구하고 논증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이념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감동을 느끼게 하는 문학을 문학 자체로 충분히 즐긴다. "이미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학의 감동 속에 빠"진 것이다. 문학 작품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읽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나 감정 같은 '인간'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영민의 태도에는 문학의 본령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효석의 의도가 드러난다. 사토 기요시 교수의 이력이나 경성제대의 영문학 강의 내용에서도 또 김남천의 『낭비』에서도 드러나듯이, 제국대학 아카데미즘은 문학조차도 정치적인 장으로 포섭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영민이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아일랜드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예이츠가 소급한 그 전설이 19~20세기의 인간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영탄을 자아내는 것인데도 그것을 문학의 외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문학 작품을 대하는 영문학자 안영민 그리고 이효석의 노림수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안영민의 이러한 태도는 실증적 방법만을 고집하던 제국의 학풍에 반(反)하는 방법이며, 먼저 문학을 오롯이 문학으로 향유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예이츠가 제국의 언어(영어)로 아일랜드의 설화를 모티브로 쓴

작품을 식민지인 안영민도 제국의 언어(일본어)로 논의하는 것 역시 일종의 포즈로 볼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일본인 교수조차 조선에서는 아일랜드 문학 연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영국-아일랜드 관계는 일본-조선의 상황을 유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국의 아카데미즘에서 아일랜드 문학은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인데, 게다가 그것을 제국대학의 강사 임용을 위한 논문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제국의 아카데미즘을 작동시키는 여러 방법들을 일부러라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이 아카데미즘 속의 조선의 지식인 청년을 그리면서도 『낭비』는 이관형의 '논문 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푸른 탑』에서는 논문의 내용이나 그 심사 과정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 이는 논문 심사 과정 안팎의 사건을 통해 진짜 말하려는 바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영문학 주임인 시마(島) 교수는 안영민에게 "오랫동안 신중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일이 비교적 어려움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 일" 또는 "학부내의 여러 가지 미묘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영민의 논문과 강사 임용과 관련된 일을 말한다.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일부러 배치해 놓고 그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바로 '실력'이다. 모든 차별을 무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시마 교수가 강조하는 것 역시 안영민의 지적 성취도, 학문을 할 수 있는 여러 '실력'이다.

> "음, 그 일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붙어 있는 이상 네 재능을 잘못 평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
> 확실하게 말하는 교수의 온화한 눈에는 한 줄기 감개의 빛이 분명하게 보였다.
>
> "딴 의견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나도 고군분투하며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신성한 상아탑에서 실**

력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있어서는 안돼. 특수사정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모두 제2의 적인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것에 걸려 가지고서는 참다운 학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편견은 금물. **나는 절대로 실력 제일주의니까.**"

회의 당시의 일이 회상되어선지 교수의 얼굴에는 흥분의 빛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개교한 지 얼마 안되어 그렇겠지만 학내에는 아직 일반적으로 학문의 기풍이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값싼 태만 속에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들 중에 너와 같이 우수한 학도를 얻은 것은 학부에서 자랑할만한 값이 있다구. 특히 우리 영문학부로서는 이 명예를 그르쳐서는 안돼. 네 빛나는 미래를 오래 지켜보고 키워나가려고 생각한다. 애써 공부하기를 바란다." (298-299면, 강조:인용자)

시마 교수는 "상아탑에서 실력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학문 자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는 학문, 실력 앞에서는 어떤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시마 교수는 오히려 당대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과 지식 체계의 보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영민의 친구 마키 역시 영민을 '조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동료'로 인식한다. 시마 교수나 마키는 학문의 보편성과 초월적인 성격 안에서 실력 하나만을 보는 것이다. 시마 교수의 사회적 상황이 학문에 틈입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낭비』의 사까자끼 교수와 완벽하게 반대된다. 나아가 시마 교수는 실력 본위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이 지향해야 할 학풍을 실력 본위에서 찾으려 한다. 시마 교수의 이러한 태도는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이 소설이 영민이 제국대학에 안착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이효석이 은폐한 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영민의 아카데미즘 입성은 학문

과 무관한 일로 무화된다. 조선인 영민을 사랑하는 일본인 요코의 음독 사건은 교수회의에서 "안성맞춤의 약점"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는 제국민과 식민지인 간의 위계 관계가 작동한다. 일본 여성을 상처주고 음독 자살을 기도하게 만든 식민지 청년은 제국의 입장에서는 체제 전복적인 일에 가까운 것이 된다. '개인'의 논문으로 봤을 때는 실력이 다른 어떤 조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으나, 제국대학의 강사가 될 사람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실력은 제국-식민지의 위계 관계에서도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제국대학이라는 아카데미즘은 현실과 유리된 성채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낭비』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 이외의 것으로 가장 쉽게 침범된다. 조선인이 일본인 여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학문의 영역 밖의 일인데도 아카데미즘을 쉽게 흔들어버린다. 영민의 강사 임용 취소는 시마 교수에게는 "학문의 전당이 없어"진 것과 동격이 된다.

> "이미 학문의 전당은 없어졌어. 솔직히 말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곳일지도 모르지."
> "이번 사건의 처리는 적어도 우리들 조수 전체에 대한 하나의 협박처럼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은 한 사사로운 일로 키워 온 모교가 자진해서 앞길을 막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유린입니다."
> "그래, 자네 기분은 잘 알겠어. 그러나 나에게 호소하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 모든 교수를 상대로 해서는 나는 이미 할 방도가 없어. **내가 혼자 몸을 던져서는 꼼짝도 안해. 하나의 힘의 결성체가 이루어져 있어**. 불유쾌한 일이지만 어느 사이엔가 그것이 당당하게 되어 있어."(362면, 강조:인용자)

치정 관계는 '한 작은 사사로운 일'일 뿐, 학문 연구와는 무관해 보인다. 음독한 요코의 오빠인 마키조차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도 시마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교수들은 '하나의 힘의 결성체'를 이루어 뛰어난 조선인 청년의 입신을 방해한다. 실력과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조선인'이라는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는 식민지 조선에 있는 대학에 입신할 수 없다는 것, 그 불합리함을 이효석은 영민의 상황을 통해 강조한다. 강사 임용이 취소된 영민의 논문은 너무나 훌륭한 논문이지만, 결국 제국의 아카데미즘은 "실력으로는 통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력이 뛰어나고 아주 좋은 논문을 쓰는 이를 강사로 발탁하지 못하고, 치정 관계에 얽힌 문제로 임용을 취소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제국의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민은 처음 요코의 음독 사건 이후 그다지 강사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시마 교수나 마키의 통탄에 비해 영민은 현실을 너무나도 빨리 수긍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 아카데미즘과 별개이든 하위이든 식민지 아카데미즘은 존재할 수도, 존재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러한 아카데미즘의 현실은 데아드라의 전설과 겹쳐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하고 다른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어 자살을 택한 데아드라의 상황은 식민지에서 외국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실력자 영민이 학문 이외의 것으로 축출되자 아카데미즘을 떠나는 상황과 같다. 학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버린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요코와의 결합을 통해 영민은 S전문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영민의 실력을 놓칠 수 없는 학자로서의 시마 교수가 큰 역할을 한다. 그는 "곤란한 절충을 거듭"하여 S전문에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영민의 실력이 대학에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최후까지 너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니 "학부로 복귀할 적당한 기회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이효석은 영민의 실력과 재능만 보고 학문 외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마 교수를 통해 대학이, 학문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식민지 아카데미즘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낭비』와 『푸른 탑』은 일본이 아닌 또 다른 제국 영국의 문학을 통해 대학에 남으려는 청년들의 분투를 통해, 영문학이라는 非조선적인 것으로 식민지 조선의 아이러니한 학계와 학문적 풍토, 그것을 둘러싼 제국의 체제를 비판한다. 이는 그 비판의 도구가 다른 문학이 아니라 '영문학', 다양한 제국의 현실을 품고 있는 영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다.

3. 제국 학지(學知)에 종속된 보편성과 실증주의

2장에서 살펴본 강사 채용 논문의 문제를 다룬 두 편의 소설에서는 결국 제국대학 아카데미즘은 조선에 있다고 해도 조선인에 의한 조선의 지식이 아니라 '일제의 승인된' 지식・담론만이 재생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생산한 지식은 아카데미즘 외부의 상황들에 의해 번번이 무화된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학'의 특성 때문에 해석 과정에서 문학 이외의 것이 많이 틈입될 수 있어서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학문은 어떠할까. 이 장에서 살펴볼 유진오의 소설들은 조금 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거나 과학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강한 학문–경제학, 자연과학– 연구와 식민지 아카데미즘에 대해 이야기한다. 윤대석은 박치우가 철학과 사상을 구분했는데, 철학(테오리아)이 객관적인 학문이라면 사상(이즘)은 현실을 추구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보았고 이를 통해 아카데미와 현실 사이의 긴장을 끊임없이 유지했다고 보았다.[36] 박치우가 강조했던 것처럼 경제학은 어

36) 윤대석, 「아카데미즘과 현실 사이의 긴장-박치우의 삶과 사상」, 『우리말글』 36, 2006.4. 381-382면.

느 자리에 놓이든 그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보편성을 지니는 '학'의 하나이지만, 실제로 경제학은 현실적 요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37]은 대학 경제학연구실에 남아 졸업을 유예하면서 조선의 농업문제를 연구하려는 김세민의 이야기이다. 사실 이 소설의 제목인 '수난의 기록'은 사회주의 사상과 그것을 가지고 있던 주의자들의 '수난'을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38] 세민의 연구와 취직 문제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 역시 '사회주의' 이념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세민은 작가인 유진오처럼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학문적 경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에 가까운 인물이다.[39] '학'은 어느 자리에 놓이든 그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지만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경제학은 경제'학'이 아니라 하나의 '이즘'으로만 인식되었고, 결국 사회주의 사상에 보인 관심은 그의 입신 과정에서 낙인이 된다. 그리고 학자로 입신하기 위해서는 세민의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

37)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은 『삼천리』에 연재되다가 연재가 중단되었다. 이후 1940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나온 단행본 『봄』에 연재 중단 이후 부분을 더해 이야기가 종결되었다. 본고에서는 『봄』에 수록된 것을 텍스트로 삼는다.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38) '수난'이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자들의 수난을 의미한다는 분석은 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의 Ⅱ장 2절 (1)항의 내용을 참조.

39) 유진오나 그의 이력을 반영하는 주인공 김세민은, 윤대석이 지적한 박치우처럼 테오리아와 사상을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인물로 보인다. 특히 주인공 세민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문인으로 등단하여 활동하는 이이다. 그의 경제학 연구가 테오리아의 입장이라면, 문인 활동은 현실을 인식하는 그의 태도를 보이는 사상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세민의 연구가 학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라는 점이다.

대학연구실에서의 세민의지위는 말하자면 기괴한것이었다. 연구실원이라면 보통이면 장내 대학에서 어떤지위라도 얻게될 사람이 되는것이나 세민에게는 그러한약속이나 히망이있는것이 아니었다. 처음 세민이 연구실로 들어가기를 히망했을때 교수는 세민이 무슨대학교수나되랴는 야망을 가진것으로알고 대학에서는 아무히망이없으니 좋은곳에 취직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세민에게는 교수에게는 말하지않은 숨은 의도가 있었든 것이다**. 그것은 학교문을 나서자마자 결정해야될 자기의 생활태도에대한 문제를 연구실로 들어가는것으로써 이태동안—연구실에있는 기한은 이년이 원측이었다—연기하랴는것이다. 이왕 연구실로 들어가는 이상에는 무슨 의미있는 연구를 해보리라 생각하였다. 그래 **그는 표면으로는 '리카-도'연구를 내세웠지만 속심으로는 조선농업문제에 대한 연구를 테-마로 잡었다.** 이년의기한이 앞으로 몇달 안남은 지금와서는 그의 연구는 천장이넘는 큰저술로서 거의열매를 맺도록되었으나 한편 교수로보면 당초에 상당히 우수한 학력이있다고 생각하든 세민이 이태가 거의다가도록 똑똑한 논문하나 발표하지안는것이 이상스러워서 가을이후로는 작구 연구보고논문을 제출하라고 재촉하였다. 세민은 하로밧비 자기의연구를 완성하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교수에게 업심을 당하는것이 실혀서—그런성질은 누구보다도 세민자신이 제일 실혀했으나 또한 할수없었다—얼마전부터 급작스레 '리카-도'에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한것이었다. (212-213면, 강조:인용자)

앞서 살펴본 『낭비』나 『푸른 탑』의 주인공의 경우 강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던 것과 달리, 『수난의 기록』의 세민은 대학에서의 미래가 없는, 대학과 사회 사이의 끼인 자이다.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 교수는 '대학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전공분야의 강사 자리는 일본에서 오기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 이는 세민의 전공이 문학이 아니라 '경제학'인 것과도 관련된다. 경제학은 제도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통치

구조와 연결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공한 조선인이 대학에 자리를 잡고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은 식민 치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경성제대 법문학부에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비율이 더 높았고 취직자의 비율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은행이나 회사에 취직한 졸업자는 일본인 졸업자가 세 배 이상 많다.[40] 그러니 연구실에 들어갈 때부터 세민에게 취직을 권하는 교수의 태도도 무리는 아니다. 여기에서 세민이 표면적인 연구의 주제로 제시하는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소득분배론'을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그의 소득분배론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최초로 정립한 체계적인 소득분배 분석 모형으로, 리카도는 분배의 문제를 경제학의 핵심 과제로 보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중요한 문제로 파악했다.[41] 리카도의 경제학은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당대 경제는 여전히 농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이윤율이 모든 산업에서 균등화될 것이라 가정한 리카도의 주장은 노동가치론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42] 자본주의가 바탕이 된 제국주의적 야욕이 커지던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세민이 제시한 표면적 연구인 리카도 연구는 경성제대의 교수에게는 마음에 드는 주제였을 것이다. 리카도의 소득분배론은 단순한 생산물의 분배가 아니라 '가치'의 분배 문제이자[43] '공평'보다도 '효율'이 핵심인 '비교우위론'이기 때문에 대동아공영권, 총동원체제의 일본 경제적 상황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다루는 리카도의 경제학은 세민이 관심 있는 조선의 농업 문제

40) 정근식・정진성・박명규・정준영・조정우・김미정, 앞의 책, 562면의 표 참조.
41) 이재옥, 「리카도의 소득분배론 연구」, 『論文集』 16권 1호, 1999. 1459면.
42) 위의 글, 1461-1462면.
43) 위의 글, 1464면.

와도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1930년대에도 조선은 여전히 농업의 비율이 높았다는 현실적 상황도 체제 내적인 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조선의 농업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조선인 지식인 청년에게도 논의의 가치는 있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리카도 연구의 영역 내에서 조선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제국의 식민지 연구가 될 것이고, 연구의 방점은 식민지 조선이 아닌 제국의 체제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민이 하고자 하는 진짜 연구는 '조선'의 농업 문제라는 것이다. 연구실에 있는 2년 동안 세민은 천 장이 넘는 조선 농업 문제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인 교수의 견해를 반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더욱 드러내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논의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농업 문제를 조선인이 조선의 대학에서 드러내놓고 연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립전문학교와 미션계 전문학교에 상과과 신설되면서부터 경제학에 대한 학적 관심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상과의 설립은 경성제대의 관학과 경쟁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44] 1920년대 초반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근대화론과 노동계급의 사회적 진출을 인정하는 경제학 등으로 국가권력과 부르주아를 옹호하는 경향이었으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상과에는 사회주의 경제학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한다.[45] 사회주의 경제학 붐은 조선인들의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이나 경제적 사고의 증대를 보여준다. 이는 식민지 조선이 조선의 주체화에 경제학이 꼭 필요한 중요한 지식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46] 1930년대

44) 이행선, 「식민지 조선의 경제공황과 경제상식」, 『한국민족문화』 54, 2015.2. 238-239면.

45) 위의 글, 239면.

46) 위의 글, 240면.

이행선은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경제학이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구

경성제대에서는 '조선학'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대학생들은 여러 학회나 모임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조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유진오는 형법연구실 조교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이강국, 최용달, 박문규, 김광진 등과 함께 〈조선사회사정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선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마르크시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조선사회사정연구소〉는 "사회운동의 실천에 좀더 가까운 것"으로 "실제운동에이론적및실증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회고했는데[47] 세민의 조선 농업 문제 연구는 아마 이런 실증적인 연구였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성제대는 실증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면서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향하는 시선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48] 리카도 연구가 그러한 '학문 연구를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조선 농업 문제 연구는 현실로 눈을 돌려야만 가능한 연구라는 점에서 일제가 추구하는 학문적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유진오의 회고로 미루어 보아 조선 농업 문제 연구와 같은 실제적인 연구는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철저하게 조선을 수탈했던 일제에게 그 실상을 드러내는 연구, 게다가 식민지 지식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조선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점은 경성제대가

축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경제학자와 조선에 경제학 지식을 생산하는 조선인 경제학자가 필요해졌지만, 1920년대에 조선인 경제학자가 드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경제 지식(상식)을 대중에게 전하는 강좌 등이 유행했다고 한다. (같은 글 참조)

47) 유진오, 「편편야화」 29, 『동아일보』 1974.4.3.

48) 이런 점은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에서 주인공인 토목기술자 김광호가 "기술에서 일단 눈을 돌리면" "일종의 팻시미즘(非觀主義)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제도대우에 〈이메-지〉와 〈이류-종〉을 그리면서" 일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모습을 일부러 선택하는 조선의 지식인 청년의 모습과도 연결된다. (김남천, 『사랑의 水族館』, 인문사, 1940.)

표면적으로는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학이 목표로 했던 것처럼 조선 통치를 위한 조선학 연구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순수하게 원하는 테마의 연구 논문 쓰기를 원했던 세민의 다짐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교수는 세민의 출신 성분 때문에 대학에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일 뿐, 세민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점은 익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는 K고등상업학교에 자리가 날 것이라면서 세민이 "썩 유능허다는 것을 증명할재료"로 리카도 논문을 요구한다. 게다가 교수는 세민에게 그가 갖고 있는 "좌익적인생각은 이기회에 일체 버리는것"이 좋겠다고 충고한다. 조선 농민 문제에 대한 연구로 2년 동안 천 장에 가깝게 글을 쓴 세민이지만, 고상 선생 자리와 그 전제가 되는 사상 여부는 큰 걸림돌이 된다. 세민은 자신은 '좌익'이 아니라 '라디컬'할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그의 '다소' 급진적인 경향의 실체인 조선농업문제 관련 논문이 존재하는 한, 그는 사학 아카데미에도 진입할 수 없다. 2장에서 살펴본 문학이라는 학문의 장(場)에서는 '관학 아카데미즘' 입사를 가로막는 것이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것임을 볼 수 있었는데, 경제학 부분에서는 '조선적'인 것은 모두 '특수한' 것이 되고 그 특수성은 모두 제국의 것에 종속되면서 점차 동화되거나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의 문제'는 지식인 청년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실업가의 아들인 이관형이나 경제적 걱정이 없어 보이는 안영민과 다르게 김세민은 일단 '생활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니 세민이 '마음과 피'를 기울인 논문에 불을 지르고 '선반에서 떡이 떨어지듯' 눈앞에 놓인 고상 교수 자리라는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에게는 생활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선택의 문제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세민은 조선 농민 문제에 대한 논문도 리카도에 대한 논문도 결국 완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신념의 문제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한다. 학교를 떠나 애정과 애욕에 묻혀 삶을 소진해 버린 후 세민이 책방에서 만난 것은 자신이 불태운 것과 비슷한 논조의, 그러나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논문이었다. 세민은 자신의 조선 농업에 관한 논문이 아카데미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저했던 것이지만, 이 무명의 지식인은 경직된 학지를 벗어나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의 지식을 생산하는 용감함을 보여준다.

> 문든 왼손편으로 책사가 보인다. 세민은 그곳에서나 옛향기를 차지랴는 듯이 그리로 들어갔다. (…) '킹구' '주부지우' '신청년'들의 호화로운 표지에 섞여 초라한 조선잡지들이 보인다. 세민은 그중에서 그리운기억있는 '중앙평론'을 집어들고 목차를 죽 훌터나갓다. 과연 세민의 기대대로 그곳에는 그래도 옛향기가 남어있었다. 세민도 연구한일있는 상고시대의 농업에 관한 논문이보인다. 필자는 이름들은일없는 새사람이었으나 내용이 그때 바야흐로 이름이높든 **C교수의 '고대조선경제사' 에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으므로 세민은 저절로히 흥미가끌려 읽어내려갓다. 필치는 미숙하면서도 논봉은 날카로웠다. 그런데다가 **논지가 C교수의 저서에대해 세민이 느끼고있든 불만과 대개 일치되는 성질의것**이었다.
>
> 읽어내려가는 동안에 세민은 가슴이 낀하도록 이멫달동안의 자신의행동을 뉘우쳤다. **이 이름모를 새사람의 신경은 어찌그리 건강하뇨**. 그리고보니 변한 것은 세상이아니라 실로 세민자신이었든가. (355-356면, 강조:인용자)

세민이 졸업을 유예하며 머물렀던 대학연구실은 그가 원하던 아카데미즘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학 안에서는 제국의 담론에 종속될 뿐이다. 오히려 관학 아카데미즘의 밖에서는 진짜 학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의 지식을 재생한하는 학문적 활동은 대학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여겼던 세민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의 것을 조선인 지식인이 말하기 위한 장(場)은 학교 밖에서도 가능했다. 오히려 경성제대라는 아카데미즘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거나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실과 유리된 제국의 지식을 되뇌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세민의 실패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1920년대 조선의 경제 지식에 대한 열풍이 그러했듯이 조선의 지식은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조선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초라한 조선 잡지이지만 이 잡지에는 진정한 식민지 조선의 아카데미즘이 나타나고 있다.[49]

만약 여기에서 살펴본 경성제대의 아카데미즘의 불가능성이 '경제학' 부분이어서라면, 자연과학의 측면에서는 어떠할까. 의미와 해석을 강조하는 문학에 비해 과학 특히 자연과학은 삶을 기술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삶을 기술적으로 지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답을 준다.[50] 그렇기 때문에 근대 세계에서 과학은 자연계의 법칙을 인식하고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보편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51] 유진오의 『화상보』에서 자연과학에 매진하는 재야학자 장시영은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국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한 조선인 청년들이 대부분 제국의 학문 체계 속에서 조선의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과 달리, 제국의 시스템 밖에서 묵묵히 신념을 지키며 연구한 『화상보』의 장시영은 결과적으로는 제국의

49) 그러나 잡지를 통한 조선의 아카데미즘 형성 역시 제국에게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는 경성제대 출신 문학인 최재서가 만든 잡지 『인문평론』이 일종의 '인문평론 아카데미즘'을 만들었으나, 결국 잡지가 폐간되면서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잡지가 발행되고 있을 때에도 권두언 등에서는 제국의 담론이 재생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불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50) 막스 베버, 앞의 책, 70면.

51) 이매뉴얼 월러스틴, 유희석 역,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2007, 82-83면.

아카데미즘에 들어가게 된다.[52] 그는 "중학시대부터 벌써 십년이 넘는 동안에 꾸준하게 식물연구에 몸을 바치어 온" "한 개 숨은 식물학자"이다.

장시영이 중학시대부터 식물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교육의 '향토화' 때문이다. 조선 교육의 향토화는 조선에 파견된 일본인 박물 교원들의 연구열에 크게 힘입었다고 한다.[53] 물론 이것은 자연물을 통한 교육의 '실제화'와 '순량한' 노동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교육 이념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54] 1930년대 '과학 조선' 운동이 일어났지만, 과학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조선인들에게는 요원한 일이었지만 식물 연구, 그 중에서도 채집과 표본 만들기와 같은 식물상 연구는 조선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예외적 과학 활동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채집・표본 활동은 『화상보』에서뿐 아니라 이효석의 『푸른 탑』에서 영사관의 스미스 부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55] 게다가 식물 채집과 표본 만들기는 근대 과학의 정신을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되었는데, 자연물을 그것이 있던 상태에서 '분리'시켜 표본으로 만들고 그 객관적인 특성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설명하고 전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56] 장시영이

52) 장시영은 나카이 박사와 함께 조선의 화본과 식물을 연구한 수원고농의 정태현과, 나비박사 석주명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 (유문선, 「화상보론」, 『문학정신』, 1991.6.)

53) 이정, 「식민지 과학 협력을 위한 중립성의 정치」, 『한국과학사학회지』 37권 1호, 2015, 272면.

54) 위의 글, 273면.

55) "스미스 부인은 숨은 식물학자로 여가 시간이면 교외에 나가기도 하고, 먼 산에까지 수집에 나가 수백 종의 신발견의 주인으로 초본과 식물을 표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 "(...) 미국에 가서 감정을 받아도 결국 신종으로 정해졌어요. (..) 신종 스미스이아 슈도카메리아라는 원어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효석, 『푸른 탑』, 390-391면.)
그러나 장시영의 발견이 모두 나까이 박사의 이름이 붙은 것과 달리, 학자도 아닌 서양인 스미스 부인이 발견한 것에는 그의 이름이 붙는다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틈이 날 때마다 식물을 채집하고 표본을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조선의 자연과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다.

> 온 조선을 다 돌아다니며 오천가지나 되는 식물을 채집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 식물을 새로 발견한 것만 해도 벌써 십여종이나 된다.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시영은 모교인 고농의 「무라마쓰」교수에게로 보내고 「무라마쓰」박사는 그것을 다시 동경제대 「나까이」박사에게로 보내서 감정과 명명(命名)을 청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새 식물로서 「나까이」박사의 이름이 붙은 것 중에는 사실은 장시영이가 발견한 것이 십여종이나 섞여있는 셈이었다.** (중략) 학명에는 「나까이」박사의 이름이 붙고 또 그것이 새로운 속(屬)의 발견이라 해서 학계에서 중대시한 것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무명의 학도 시영의 공적인 것이다. (중략) 지금까지 두서너번이나 시영은 조선 식물의 분포에 관한 연구를 「일본 식물학회」의 기관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는 실력있는 숨은 학자로서 장시영을 아는 사람도 몇 있었지마는 뜬 구름같이 화려한 저어나리즘에는 장시영의 석자는 한번도 나타난 일이 없다.
>
> 물론 그런 것을 원하거나 불만히 생각하는 시영도 아니다. (234면, 강조:인용자)[57]

그런데 인용문에서 강조된 내용처럼, 장시영의 성과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나까이 박사의 이름이 붙어 발표된다. 장시영은 "그저 그것이 제일 마음에좋기 때문"에 '식물을 연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는 제국 아카데미즘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말하기도 하

56) 이정, 앞의 글, 276면.
이정은 조선인들이 채집 활동과 표본 수집을 한 것이 일본이 제공하는 과학 교육이나 연구 기회 부족을 비판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메우려는 노력이었다고 했다. (같은 글, 277면)

57) 유진오, 『華想譜』, 민중서관, 1959.
『화상보』의 인용은 여기에서 하며, 인용 말미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는 것이지만, 조선의 것이 결국 일본의 지방학으로 갈음되는 제국대학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연과학에는 정치적인 것이 결합될 여지가 매우 적어 보인다. 이 소설에서 장시영의 친구인 전 사회주의자 송기섭은 자연과학이 "어느 정도 초시대적"이라면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장시영을 응원하지만, 실상 장시영의 업적은 장시영의 것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것은 앞서 논의했던 학자를 지향하는 청년들과 달리 연구 자체에만 몰두하는 장시영이라는 인물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발견'의 기쁨에 만족하는 듯한 것은 장시영의 포즈가 아닐까. 장시영의 지식 재생산에 대한 욕망은 새로 채집한 식물의 표본을 무라마쓰를 통해 나까이 박사에게 보내도, 실제로는 '조선의' 화본과 식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지식이 어머니의 병원비만큼의 가치를 지닌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시영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조선식물 분포에 관한 연구" 중 '화본과(禾本科)' 식물에 관한 것을 정리해 돈과 바꾼다. 이 '정리'는 일반 조선인들의 식물 채집과 표본 활동의 수준을 넘어서는, 순수한 지적 활동이자 조선의 식물학 지식을 생산하는 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번부터 급한대로 화본과(禾本科) 식물에 관한 것만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거의 다 완성된 것이었다. 지도가 십여매 원고가 칠팔십장의 간단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만들기 까지의 고심을 생각하면 몇십원 돈과 바꾼다는 것은 도리어 모독 같기도 하나 또한 어지할 수 없는 일이었다.
>
> 그러나 그것은 어찌 됐든 책상 앞에 앉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시영이다. 그에게는 인제는 그 이상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
> 이제 남은 일은 최후로 한번 다시 읽는 것과 간단한 서문을 붙이는 것이었다. 인제서야 겨우 다 돼가는구나 하는 기쁨이

> 없지도 않았으나 읽어 내려가노라니 역시 불완전한 데, 의심되는 데가 뒤를 이어 나온다. 그런데를 마음에 흡족하도록 고치려면 앞으로 또 몇해는 연구를 더 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어름어름 손질을 하며 내려가노라니 문득 "이 초라한 것을 연구라구 내놓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논문이 서푼어치 가치도 없는 것으로만 생각이 된다.(398면)

'일연구생의 중간메모'라는 이름을 단, 시영의 겸손하고도 깊이 있는 학자의 모습이 담긴 원고는 예전처럼 수원고농의 무라마쓰 박사에게로 일단 보내졌다. 시영이 대학 학생도 전문 연구인도 아닌 '일연구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논문은 사실 학계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단계마다 승인되어야 동경의 '일본식물학회'로 갈 수 있다. 시영은 『수난의 기록』의 세민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것을 연구하지만, 세민과 달리 그의 노력의 결실인 원고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영의 조선 화본과 식물 연구가 일본인 선생인 '무라마쓰'를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시영으로서는 연구한 것들을 발표할 만한 매체가 없었고, 제대로 대학에서 수업을 마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모교의 선생에게 보낸 것이었고, 모교의 선생은 또 그것의 학적 판단을 위해 일본으로 보낸 것이었다. 이러한 학문 체제에 아무 이의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영은 본고에서 다룬 다른 지식인 청년과는 달리 일본 동경의 학회장에 설 수 있었다. 발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지식이 누구의 것인지가 결정된다. 물론 신문에 보도되면서 조선의 화본과 식물 연구가 조선인 장시영의 업적이라는 것이 알려지지만, 제국의 승인을 거치면서 그의 업적은 조선인의 조선의 것 연구가 아니라 제국의 식민지로서의 조선의 것을 연구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일종의 우회로를 선택함으로써 시영은 제국의 시스템을 인정한 것

이다. 세민처럼 '조선'의 것을 다루었지만, 이 우회로를 통해 시영의 연구는 '제국의 식민지 연구'의 한 부분으로 쉽게 포섭될 수 있었다. 그리고 관형, 영민, 세민이 연구 업적만으로 제국의 학지 체계에 들어서지 못한 것과 달리 시영은 성공할 수 있었다.58) 물론 시영이 유일하게 성공하는 것은 『화상보』가 모델 소설이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학문 연구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그의 태도가 결국 제국의 아카데미즘에 수용될 수 있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농의 조수로 1년 동안 있던 시영은 1년 후, 약속한 대로 고농 강사의 사령장을 받고, 동경제대에서 열리는 일본식물학회 대회에 출석하게 된다. 앞서 다룬 작품 속 학자 청년들이 약속된 강사 자리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우회로를 거쳤던 시영은 고농강사가 되어 식민지 본국의, 학회에서 "강철보다 더 단단한 의지"로 배짱 있게 조선 사초과 식물 분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국 학지의 일면을 경험한 그는 동경제대의 "충분한 시간과 완전한 설비와 넉넉한 경비"에 뱃속부터 부러움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 제국의 아카데미에 안착한 후에야 제국과 식민지 아카데미의 연구 환경의 차이가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시영은 식민지의 연구 현실에 대한 열등감과 함께 "그와 같이 높게 되려"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학회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 장시영에게서 볼 수 있는 실패한 다른 청년들에게서 볼 수 없는 당당함, 식민지 다음 단계인 제국 학계로의 편입 등에서 식민지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학문'이라는 새로운 보편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보편'으로 보이는 것일 뿐 제국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음을 오히려 동경에 선 장시영에

58) 유진오의 『화상보』는 묵묵히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했던 시영의 성공과, 속물 교양주의와 돈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빠진 경아의 몰락이 교차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결국 학문과 예술 영역에서 그 본질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게서 엿볼 수 있다.

유진오의 소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경제학 연구나 조선인의 주식인 조선의 화본과 식물에 대한 연구는 모두 아카데미 안에서는 온전한 '조선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식민지 아카데미즘이 제국의 식민지 운용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초라한 조선 잡지에 실린 무명 학자의 논문이나 제국 아카데미즘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조선인 학자에 의해 조선의 식물학이 계속 연구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제시함으로 '아카데미즘'이라는 울타리라는 한계를 넘어서 조선의 지식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4.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조선의 청년들

지식인은 자국민의 집단적 고통을 재현하며 그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고, 다시 확인하며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는 의무를 지닌 자들이다.[59]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은 조선인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재생산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연구하고 보여주려 한 조선의 현실에 대한 연구는 제국의 아카데미즘에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은 조선인들의 학문적 성취가 미비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기 때문에, 혹은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학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제국의 아카데미즘에서 배제된다. 이는 학문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력이나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제

59) 에드워드 W. 사이드, 앞의 책, 88면.

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지식을 생산하며 지배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관학 '아카데미즘'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제국의 언어로 이방의 학문을 연구하거나 제국의 언어로 조선의 학문을 연구하거나, 말해지는 것은 달라도 제국의 언어로 제국의 제도 하에서 학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식민지 조선인 청년들에게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아카데미즘'은 사실 식민지 조선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제국대학이라는 구조 자체가 일본의 제국대학 중 하나로 기획된 것이며, 경성제대는 제국 일본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것들을 연구하는 동시에,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의 조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니 설립의 취지나 목표, 교육 제도나 운영 등 모든 것이 제국의 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선인들은 근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지적 욕구를 갖고 제국대학을 욕망했다. 게다가 '학문'이라는 일견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분야는 식민지 지식인들의 지적 능력을 만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지식 생산 능력은 일본인과의 차이를 무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적어도 본고에서 논의한 소설에 나타난 조선의 지식인들이 열망했던 제국대학은 개인의 입신출세만을 위한 기관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학문적 언어로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사용하여, 관학에서 제시하는 학문의 범위와 보편적인 학문의 범위를 넘나드는 조선인 지식인들의 지적 열망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영문학 중에서도 '제국' 영국의 문학이 아닌 영미문학이나 아일랜드 문학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유비하는 동시에 학문적 보편성을 막는 아카데미즘의 한계를 보이는 동시에 일본어, 영어에 능통한 조선 학자들의 학문적 우수성 그리고 아카데미에 가장 필요한 지식재생산이 가능한 뛰어난 '능력'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혹은 조선적인 것이 결국은 제국적인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아카데미즘

의 틀을 벗어나 지식 재생산에 몰두함으로 결국 장(場)을 넘어서는 지적 활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결국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불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식민지 작가들은 오히려 그 불가능성 안에서도 지식 재생산을 열망하고 있었던, 그렇게 학문과 현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의 지적 욕망과 한계, 좌절, 그러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 재생산의 가능성을 장의 폐쇄성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남천, 『낭비』, 1940.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 『봄』, 한성도서주식회사, 1940.

유진오, 『華想譜』, 민중서관, 1959.

이효석, 『푸른 탑』, 『이효석 전집』 4권, 창미사, 2003.

김필동, 「지식 변동의 사회사-과제와 방법」, 한국사회사학회, 『지식 변동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2003, 13-43면.

류준필,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그 지정학적 함의-자국(문)학 형성의 맥락에서」, 『한국학연구』 32, 2014, 93-124면.

박명규, 「지식 운동의 근대성과 식민성」, 한국사회사학회 편, 『지식 변동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2003, 119-150면.

배상미, 「아일랜드 문학을 경유한 제국주의 넘어서기-이효석과 사토 기요시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9, 2015, 487-525면.

사노 마사토, 「경성제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26, 2008, 319-336면.

서은주,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2006, 252-279면.

송효정, 「비국가와 월경(越境)의 모험-1930년대 대중소설과 청년 코스모폴리탄」, 『대중서사연구』 24, 2010, 7-43면.

유문선, 「화상보론」, 『문학정신』, 1991.6.

윤대석, 「아카데미즘과 현실 사이의 긴장-박치우의 삶과 사상」, 『우리말글』 36, 2006.4, 371-397면.

_____, 「<화상보>에서의 교양과 과학」, 『우리말글』 70, 2016, 369-395면.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280-307면.

이양숙, 「이효석의 『푸른 탑』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전략 : 서양고전의 차용과 변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 2012, 143-174면.

이정, 「식민지 과학 협력을 위한 중립성의 정치」, 『한국과학사학회지』 37권 1

호, 2015, 265-298면.

이재옥, 「리카도의 소득분배론 연구」, 『論文集』 16권 1호, 1999, 1457-1467면.

이행선, 「일제말기 유진오의 문화 인식」, 『국제어문』 53, 2011, 183-215면.

_____, 「식민지 조선의 경제공황과 경제상식」, 『한국민족문화』 54, 2015.2, 235-270면.

장문석, 「소설의 알바이트화, 장편소설이라는 (미완의) 기투」, 『민족문학사연구』 46, 2011, 216-257면.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의 영문학 작품 수용과 상호텍스트성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47, 2011, 193-223면.

_____, 「식민지 조선에서 '헨리·제임스·조이스'라는 기호」, 『한국근대문학연구』 29, 2014, 7-31면.

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사이間SAI』 11, 2011, 93-134면.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역락, 2009.

막스 베버,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나남, 2017.

윤수안, 윤수안·고영진 역, 『'제국일본'과 영어·영문학』, 소명출판, 2014.

에드워드 W. 사이드, 전신욱·서봉섭 역, 『권력과 지성인』(개정판), 창, 2011.

이매뉴얼 월러스틴, 유희석 역,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2007.

이효석, 『헨리 제임스의 영미문화 비판』, 아카넷, 2008.

정근식·정진성·박명규·정준영·조정우·김미정,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유진오, 「편편야화」 29, 『동아일보』 1974.4.3.

조용만, 「晩餐」, 『春秋』 1941.7.

<Abstract>

The Colonial Academism and The Intellectual Youth of Joseon

Jung, Ha-nie

The paper looked at the colonial Academyism in a novel that shows young people who were intellectuals of the colonial Joseon who wanted to enter the academic world of the colonial Joseon. In colonial Joseon, there was only one university. So it was very difficult to develop knowledge of the colonial Joseon. In *The Waste*(『낭비』, Kim Nam-cheon), *Blue Tower*(『푸른 탑』, Lee Hyo-seok), *Record of Suffering*(『수난의 기록』) and *Hwasangbo*(『화상보』)Yu Jin-oh), Joseon's young intellectuals write papers. Their writing is related to intellectuals' responsibility to show the reality of Joseon beyond the question of meeting intellectual desires. Their paper used English literature to talk metaphorically about the establishment of an Imperial-colony relationship, and also corroborate the fact that an academy was not established in Joseon. It also showed the reality that Joseon's things must be part of the empire. After all, the colonial writers show paradoxically the possibility of a new knowledge-reproduction of Joseon, through the young intellectuals who already knew the closeness of the knowledge-field fight the reality, and show their intellectual desire, limitations and frustration.

Key words: the colonial academism, the intellectual youth, English literature, economics, science, reproduction of knowledge

투 고 일 :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